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4월 2일 금요일집회시 아멘찬양대 특별찬양

·일 시: 오늘(3월 14일) 15:00
·장 소: 갈릴리움
·대 상: 남부전도부 각 지회 회장, 부회장,
 전도부장 전도부차장 전도위원회 인연회

교회학교 탁아부 지도에 오인숙 전도사가, 직능전
도부 이미용전도회장에 이정우 장로가 임명되었다.



김창인 목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이사야 40:3-5)

“우리는 광야에서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1. 어디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나

“...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3절)

하나님께서 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말씀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할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길이 광야와 사막에 있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을 시나산에서 드러내 보이신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과 광야로 나아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 가서 포로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과 같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나라가 망하였었습니다. 이제 망한 유다 민족은 구리줄에 결박을 당하여 천, 만 리, 먼 바벨론까지 갇혀 끌려 가서 포로생활을 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자유를 얻고 독립할 희망이 두무지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다 남은 식구들도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배를 불안하여 하루도 안식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향하여 광야에 사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광야생활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쁜 곳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권경하고 담담한 광야와 사막같은 곳에서도 해야 합니다. 물이 없고 오래만 날라는 사막같은 세상에서 갈갈정정하다가 쓰러져 울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 골짜기를 돋우어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4절)
하나님을 맞이할 길을 만들려면 골짜기를 그대로 두면 안되고 돋우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길에는 두 가지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심의 골짜기입니다.
육심은 허락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하여 죄를 짓기까지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육심의 골짜기가 빠진 사람

은 누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고 하려도 주머니를 풀지 않습니다. 육심은 땅보다도 두둑고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세상에서 육심을 다 채우고 죽은 사람은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육심의 골짜기는 밑이 없는 무지경입니다. 육심에 눈이 어두워진 인종도, 사정도, 도의도, 신앙도, 민족 양심도 하나님마저도 다 팔아 먹고 맙니다. 육심에 눈이 어두워진 자기의 인격도 팔아 먹고 맙니다. 이 무서운 육심의 골짜기를 돋우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심의 골짜기를 돋운 다음에야 알길이 열리고 육심의 골짜기를 돋운 다음에야 제물할 예수님을 마중나갈 수 있습니다. 육심의 골짜기는 무엇보다도 돌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날의 내 처지에서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런 죄인이 좋은 옷을 입었고 이런 못난 것이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 너무나 만족합니다. 육심의 골짜기를 자작으로 메우고 조심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원망의 골짜기입니다.
사람은 일이 조금 잘 되면 육심의 골짜기를 파고 일이 조금 안되면 원망의 골짜기를 원없이 파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런 좋은 일에도 불투명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새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라도 자식이 계속 원망하면 사랑의 손길은 끊어버립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멀어지게 됩니다. 원망의 골짜기를 메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의 골짜기는 무엇으로 메웁니까? 감사로 메워야 합니다. 지옥 갈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심의 골짜기는 자작으로 채우고 원망의 골짜기는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고 제물할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원망을 하려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일찍이 70년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짓

고,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은 골짜기를 메웠기 때문입니다.

(2)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4절)

산을 내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거만이고, 셋째는 오만이고, 넷째는 설만입니다. 교만은 있는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작은 산입니다.

교만보다 조금 더 큰 산은 거만입니다. 거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제가 잘났고 뽐내는 것입니다. 돈도 권세도 없고 지식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 혼자 잘났다고 거만을 뽐냅니다. 거만보다 더 높은 산은 오만입니다. 오만은 반역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거역하고 나라를 거역하고 뱀사에게 순종할 줄을 모르는 것이 오만입니다. 오만보다 더 높은 산은 설만입니다. 설만은 하나님에게가 저 주먹질을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된 말을 함부로 퍼붓습니다. 이렇게 설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이 제물할 때에 마중 나갈 수 있었습니까.

(3)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4절)

고르지 않은 곳은 포복포복하다는 것으로 의식하고 간사한 마음을 말합니다. 간사한 것은 중심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여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까 기뻐서 날뛰면 적에는 제 몸의 살도 빼어 먹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무서운 마음이 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너무 치우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에는 손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분고분 거짓말을 하고 포복포복 의식을 하고 고분고분을 마음고 고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짓말도 돈이 생기고 거짓말로 권세를 얻는 데도 있지만 거짓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하고도 사람을 기쁘게하여 인심을 얻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버리고 치우치는 마음을 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4절)

“험한 곳”이란 완고하고 폐역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잘하고 신경질을 부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폐역한 고집은 상대방을 옳고 자신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겨 보겠다는 것입니다. 폐역은 반역을 내포합니다. 이런 험한 것들을 평지로 만든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험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3.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5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에게에는 영광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여호와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요 1:14, 히 1:3). 이런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을 사람과 진노의 하나님을 뵈고 저쪽 각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제림할 때에 마중나가는 사람은 여호와와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진노하시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보고 자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마중 나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언덕아 산아 나를 가리워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광야에 혼자 있었으면 이렇게 험하기가 길을 잃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멀리하여 합시다.

우리는 광야에서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시 말해 육심과 원망의 골짜기를 돋우어야 합니다.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설만의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의식하는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험하고 완화된 마음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이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땅에서 살고 가경이 살고 나라가 살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히 뵈게 됩니다. ■



김성권 목사

돌연한 풍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35절). 예수님은 온 종일 바닷가에서 여러 비유로 군중들을 가르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무덤히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37절). 제자들은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보낼 정겨운 시간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군중들을 돌보고 섬기느라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의 오해

물론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기쁨과 승리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실패여행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 예수님께서 동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축복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의 주님됨을 의심하기조차 합니다.

기대를 저버리는 풍랑

예수님은 많은 복된 약속과 함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에서 이루어질 매우 개인적인 구제의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온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느라 몸이 지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대를 일시에 물거품처럼 만났을 때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런 문제였습니다. 전혀 기대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풍랑으로 인해 배가 거의 뒤집힐지 걱정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음의 사관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절규하듯 외친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

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38절).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서 두려워 떨며 상심합니까?

풍랑은 있기 마련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편에 있는 행복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싶어합니다. 이 때, 예수님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곳에 도착하는 날까지의 매일의 삶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약하

잠잠하라

(막 4:35-41)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폭풍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앞에서 생활이 순식간에 혼란해지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그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과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폭풍들이 있습니다. 요나만 한 폭풍은 그의 사명을 재확인 시키는 폭풍이었습니다(욥 1:4). 사도 바울이 만난 폭풍은 그와 일

합니다. 우리가 멀리 출장을 가 있을 때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여행을 마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잠잠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성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39절). 그러자, 바람과 파도는 즉시 물러가고 달은 구름 사이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다시금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것것에는 배가 물결을 가르는 소리와 제자들의 뉘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불어오고 있는 폭풍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재워주시고 완전한 평온을 가져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폭풍이 다가 왔을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그 외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거하십시오. 사실, 매일 불어 오는 폭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게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기회의 선물입니다. 이 폭풍속에서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과 충만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폭풍을 저급 당장 잠잠게 하실 수 있으시며 완전한 평온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 내적인 평화,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기도하시고 그 분을 깨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평화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문제는 폭풍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그 외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거하십시오. 사실 매일

불어 오는 폭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게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기회의 선물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과 충만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고 용기가 없으며 의욕이 못하기 때문에 이 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마지막 항구에 안전히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없는 건릴 수 없는 풍랑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풍랑들은 어떠한 것들이겠습니까? 사실, 강하게 불어오는 태풍, 배를 삼켜 버릴 듯이 덮쳐오는 성난 파도, 그리고 무절제 몰려드는 천둥 번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천체학자의 공포는 가히 상상을 넘어섭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눈사태와 홍수 등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도 경계해 왔습니다. 이 지구 상에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널려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니”(롬 8:22).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행들을 가두라는 섬에 불식착하게 하여 그 섬 사람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기회의 폭풍이었습니(행 27,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믿음을 시험하는 폭풍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폭풍이 다가옵니다.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불어오는 폭풍이 있는가 하면 짧은 폭풍도 있습니다.

어떤 폭풍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들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יהוה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치 아니하시며 멸칠이 아니 있으시며”(사 40:28). 맞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곤해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제31대 장로 후보자 명단

추천순위 장로 후보자

1	김구형
2	원웅철
3	안동현
4	장철환
5	황의만
6	이형수
7	박덕양
8	박홍규
9	배춘식
10	이계인
11	이동명
12	조종환
13	김영은
14	권명옥
15	최차용



김구형
나이 50
교구 4
봉사 부서 유치부 부감
지역장
제직회 부서기
번호: 1



원웅철
나이 54
교구 12
봉사 부서 중등1부 부감
지역장
번호: 2



안동현
나이 52
교구 2
봉사 부서 봉사위(자랑부)
지역장
제직회 부서기
번호: 3



장철환
나이 51
교구 11
봉사 부서 청년2부
지역장
기회와 실행위원
번호: 4



황의만
나이 51
교구 3
봉사 부서 장년3부 부감
지역장
번호: 5



이형수
나이 52
교구 7
봉사 부서 청년1부 부감
내년전도회 연합회장
주안송현 권집장
번호: 6



박덕양
나이 58
교구 10
봉사 부서 신촌가정부 부감
지역장
안수집사회 부회장
번호: 7



박홍규
나이 54
교구 4
봉사 부서 가브리엘
중등1부
지역장
번호: 8



배춘식
나이 58
교구 13
봉사 부서 신촌가정부
지역장
번호: 9



이계인
나이 58
교구 2
봉사 부서 임아누영 부대장
전도부 차장
지역장
번호: 10



이동명
나이 53
교구 3
봉사 부서 장년1부 부감
지역장
안수집사회장
번호: 11



조종환
나이 58
교구 12
봉사 부서 장년2부
지역장
번호: 12



김영은
나이 52
교구 8
봉사 부서 유치부 부감
지역장
제직회 부서기
번호: 13



권명옥
나이 48
교구 4
봉사 부서 대학부 부감
지역장
제직회 서기
번호: 14



최차용
나이 62
교구 4
봉사 부서 장년2부 부감
지역장
번호: 15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투표에 임합니다.

제12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송두섭
나이 45
교구 7
봉사 부서 새가족부
기회와 실행위원
회계부
번호: 1



신광철
나이 46
교구 4
봉사 부서 대학부
전도회4연합회장
선교회와 실행위원
번호: 2



윤석민
나이 47
교구 6
봉사 부서 가브리엘
고등부
기회와 실행위원
번호: 3



김은철
나이 62
교구 1
봉사 부서 예배위원
장년3부
남성구역장
번호: 4



이명희
나이 62
교구 9
봉사 부서 가브리엘
장년2부
지역장
번호: 5



소재철
나이 54
교구 1
봉사 부서 예배와 안내
장년1부
전도회1연합회장
번호: 6



김문섭
나이 54
교구 2
봉사 부서 새가족부
전도회2연합회장
남성구역장
번호: 7



조영철
나이 56
교구 10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회계부
번호: 8



양병진
나이 47
교구 17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9



정원근
나이 43
교구 12
봉사 부서 중등2부
남성구역장
번호: 10



황기용
나이 64
교구 14
봉사 부서 예배위원
남성구역장
번호: 11



홍성옥
나이 53
교구 9
봉사 부서 예배와 안내
장년2부
남성구역장
번호: 12



박필래
나이 65
교구 4
봉사 부서 장년3부
지역장 대리
번호: 13



김철환
나이 52
교구 11
봉사 부서 아멘
외국인선교장
남성구역장
번호: 14



윤우선
나이 52
교구 13
봉사 부서 새가족부
지역장 대리
번호: 15



장승규
나이 50
교구 2
봉사 부서 청년1부
남성구역장
번호: 16



이용현
나이 60
교구 6
봉사 부서 교구간사
남성구역장
번호: 17



석영식
나이 48
교구 11
봉사 부서 교구간사
지역장 대리
번호: 18



박종태
나이 55
교구 15
봉사 부서 장년1부
남성구역장
번호: 19



김형곤
나이 51
교구 16
봉사 부서 할렐루야
번호: 20



김홍기
나이 49
교구 14
봉사 부서 예배위원
새가족부
번호: 21



강태연
나이 45
교구 12
봉사 부서 고등부
남성구역장
번호: 22



안도수
나이 61
교구 8
봉사 부서 예배와 안내
번호: 23



최남하
나이 60
교구 3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24



이홍우
나이 47
교구 8
봉사 부서 가브리엘
교구간사
번호: 25

장로·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김인철

나이 42
교구 15
봉사 부서 청년1부
장남성구역장
번호:26



박창근

나이 61
교구 17
봉사 부서 장년2부
번호:27



김용석

나이 60
교구 10
봉사 부서 가브리엘
남성구역장
회계부
번호:28



윤주현

나이 51
교구 7
봉사 부서 할렘루아
부대장
번호:29



권병철

나이 58
교구 17
봉사 부서 가브리엘
새가족부
전도회1연합회장
번호:30



김재춘

나이 55
교구 13
봉사 부서 새가족부
남성구역장
번호:31



최만복

나이 52
교구 5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32



이정훈

나이 57
교구 8
봉사 부서 소망부
남성구역장
번호:33



이영환

나이 52
교구 2
봉사 부서 아덴
중동3부
기회와 실행위원
번호:34



정영래

나이 49
교구 9
봉사 부서 초동부
남성구역장
번호:35



장영환

나이 57
교구 10
봉사 부서 장년1부
남성구역장
번호:36



김중춘

나이 49
교구 3
봉사 부서 새가족부
남성구역장
번호:37



구재완

나이 47
교구 2
봉사 부서 에베레산(대)
고동부
기회와 실행위원
번호:38



김경철

나이 57
교구 11
봉사 부서 소망부
전도회1연합회장
남성구역장
번호:39



전계식

나이 51
교구 7
봉사 부서 새가족부
남성구역장
번호:40



최호일

나이 50
교구 15
봉사 부서 할렘루아오케
스트라
남성구역장
번호:41



박종학

나이 48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42



양한원

나이 52
교구 1
봉사 부서 초동부
번호:43



박재현

나이 46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부구역장
번호:44



이수철

나이 55
교구 2
봉사 부서 아덴 지화자
남성구역장
번호:45



신기만

나이 53
교구 13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46



임순배

나이 63
교구 4
봉사 부서 회계부
번호:47



김신국

나이 52
교구 1
봉사 부서 아덴
외국인신교부
남성구역장
번호: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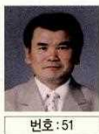
김규석

나이 46
교구 6
봉사 부서 장년1부
남성구역장
번호:49



이종원

나이 44
교구 12
봉사 부서 새가족부
남성구역장
번호:50



엄복섭

나이 49
교구 2
봉사 부서 할렘루아
장년1부
번호:51



정운환

나이 55
교구 6
봉사 부서 소망부
번호:52



이정탁

나이 52
교구 14
봉사 부서 사랑부
번호:53



추병창

나이 54
교구 8
봉사 부서 소망부
봉사위(사랑부)
번호:54



박상대

나이 49
교구 2
봉사 부서 가브리엘
고동부
남성구역장
번호:55



김동욱

나이 45
교구 14
봉사 부서 고동부
남성구역장
번호:56



권석태

나이 63
교구 10
봉사 부서 가브리엘
번호:57



윤상언

나이 52
교구 16
봉사 부서 교회지원(관
리과장)
번호:58



문효식

나이 55
교구 4
봉사 부서 지역장 대리
번호:59



신종기

나이 47
교구 3
봉사 부서 소년부
남성구역장
번호:60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투표에 임하십시오.

후천순위	안수집사후보자
1	송두섭
2	신광철
3	윤석민
4	김은철
5	이명희
6	소재철
7	김문섭
8	조영철
9	양병진
10	정원근
11	황기용
12	홍성욱
13	박필래
14	김철환
15	윤우선
16	장승규
17	이용현
18	석영식
19	박종태
20	김형곤
21	김홍기
22	강태영
23	안노수
24	최남하
25	이흥우
26	김인철
27	박창근
28	김용석
29	윤주현
30	권병철
31	김재춘
32	최만복
33	이정훈
34	이영환
35	정영래
36	장영환
37	김중춘
38	구재완
39	김경철
40	전계식
41	최호일
42	박종학
43	양한원
44	박재현
45	이수철
46	신기만
47	엄순배
48	김신국
49	김규석
50	이종원
51	엄복섭
52	정운환
53	이정탁
54	추병창
55	박상대
56	김동욱
57	권석태
58	윤상언
59	문효식
60	신종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글주에 만난 사람

하나님의 고향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최창준 집사님



교회학교 전양대 지휘사 훈련을 마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은경(경동1부 전양대 지휘사)

지난 주일(3월 7일) 저녁 전양예배 후 교회학교 전양대 지휘사 훈련이 찬양원회집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전양대에서 지휘한 지 9년째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 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인규 찬양 감독님께서 직접 전양대 지휘사의 역할, 자세, 선곡 및 분석, 그리고 지휘법까지 강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저녁 전양예배 후 짧은 시간의 훈련이어서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전양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의 의의라는 전하 다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들 거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의 임술을 주시고 또한 학생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지휘사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휘자는 신앙과 인격과 높은 음악성을 갖추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성실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등 신앙적으로 인격이 주어야 하며 학생들과 지휘자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

주일이면 늘 반갑게 보는 많은 중현의 식구들이 있다. 하지만 주일 하루 바쁜 봉사과 섬김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은 늘 적은 것 같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 생각 같은 동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최창준 집사님(1교구)을 만나보았다. 은영하고 계시는 '믿음열식' 아개 안에에는 수없이 많은 열식이 베풀 면을 채우고 있고 여기저기에 빛나는 성경말씀들이 가득하다.

▶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모태신앙인 아이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에 갔어요. 선물이란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어서요(웃음). 학습은 일찍 받았지만 경제적인 기회를 놓치고 26살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정말 제 생애 가장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어요. 여태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핑계가 흔해졌을 정도였어요. 그때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 어디서 봉사하고 계신가요?

저는 초동부과 에바나무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주일 1부예배를 드리고 찬양예배까지 온종일 교회에 있어요. 일주일 동안 주일이 기다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루모들이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부모의 예배

시간에 맞추느라 자녀를 교육부서에 보내지 않고 대에 배반 드리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아들에 대한 교육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하자', '이제 하나님이다. 공부만 잘 하면 뭐 할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활동에도 무리 참석시키고 싶어요.

▶ 요새 IMF라 힘들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양식을 채워 주세요. 사람의 산수는 '더하기'이지만 하나님의 산수는 '곱하기'입니다. 처음엔 1+1=2가 1×1=1보다 더 커보이지요. 하지만 3+3=6이지만 3×3=9이고 4×4=16입니다. 연약하기에 불안하지만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 주세요.

▶ 중현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을 맛보며 하는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저의 은혜 제 아이만큼 성경을 통독하려고 마음먹고 읽고 있는데 성경말씀 하나하나가 숨어있었던 단 것을 체험하며 은혜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예복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취재/이수경 기자)

입교식을 하고 나서

변화시키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생활 다짐

박은 석(고동부)

아들의 입교식을 지켜보면서

영려를 접고 감사와 기도의 마음을 보낸다

홍명희(백은석 어머니, 집사, 5교구)



지휘사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방향 제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 다할터

가 되어 영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자는 단순히 합창 지휘 '기술자'라는 역할을 뛰어 넘어 모든 사람 앞에서의 모범적 사명자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의 찬양은 일반 합창대의 음악과는 달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예배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양 준비에 임하는 지로서는 지금까지 잊었던 다 실행해야 했던 사항들이지만 재인식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 찬양은 언제나 기도조성 준비하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 찬양을 준비하되 교과리와 절기 및 그 주일의 말씀과 초화를 이르는 선곡과 시간을 엄수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성으로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훈련되어야 해 내린 모두가 신앙 고백적 찬양을 과 학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성이 살아 찬양하도록 지도해야 그 주일의 예배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한 신 말씀과 지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편진 것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세례·입교'라는 행사를 지었다. 중동부에서도 단제로 '세례·입교'식이 있었으나 도중에 한번 빠져서 다음 기회에 입교받기로 했었다. 오래 전,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듣고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입교'를 한다는 생각에 약간 두렵기도 했었다. 그러나 장로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입교를 받은 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입교를 받을 때는 진실로 변하는 삶을 가지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입교 받기 전에는 약간 문체 있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입교 교육을 받은 후로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차츰 변해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기도드리는 것과 성경책을 그 전보다 더 많이 읽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은 오인은 주변 사람들도 잊었다. 우선적으로 주님에게서 변신되었다고 믿는다. 입교를 받으면서, 감성관 목사님의 질문에 오른손을 들고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참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디서냐, 언제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린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우리집 막내 박은석(고동부 1년)이가 99년도 1차 학습·세례식이 있는 오늘 찬양 예배시간에 입교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저는 부모의 신앙으로 믿음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알아서 신앙을 지켜야 하기에 한원으로는 열려도 되고 한원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는 두 마음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회고조 할아버지로부터 5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에 서 성장해온 은석을 찬양 예배시간 내내 전리양에 앉아 지켜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은석에게 주을 소망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렸다.

그동안 입교식을 준비하는 라 문답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공부한 것과 또 또 보는 것은 물어보는 모습과 잘 모르고 공부하듯 첫날 약국에도 관한 질문 말씀들을 은해하면서 마음이 기뻐 눈물 흘리며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고백할 때 신앙의 성숙함이 엿보이기도 했다.

은석아!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 더욱 기도 많이 하리라 약속하며 부득히 한 하나님의 전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 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성경말씀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켜 주기를 바란다.



교역자 수련회 / 자체토소식

교역자 수련회

작년 봄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 받았던 감격을 기억하면서, 설레는 기대감으로 세련된 맛은 교역자 수련회였다. 역시 기대한 만큼 큰 은혜를 간직하며 잔잔한 감동과 함께 이 글을 쓴다.

3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교회회를 출발하여 설악산 대명 설악관전으로 향하였다. 한계령을 접어들며 무릎 꿇고 기도하듯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눈송이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더니 한계령 정적을 올라갈 무렵부터는 눈이 산에 쌓이기 시작하였다. 눈덮인 주변의 산들이 점점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나무들은 눈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의 마음은 온통 눈덮인 산을 감상하느라 여가지에서 갈탄사가 흘러 내렸다.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느 사이에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 첫날 첫 시간은 시작되었다.

울산마비와 설악산의 풍경이 눈 앞에 보이는 숙소에 배정을 받아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보자, 그 동안 슬픔없이 바쁘던 일상을 잠시 잊고 설악산의 정취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치를 감상하던 것이 아니었기에 바로 오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특강이 '죽어가는 교회'를 생명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예정 시간은 한 시간이었으나, 진지한 관심 속에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진행된 강의는 2시간 15분이나 계속되었다. 이 강에서 목사님은 예배초교회가 바울, 디모데, 아볼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목회하던 곳인데, 왜 1세기도 지나지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변질될 수 있었을까



하나됨을 확인

정 해 성(목사, 9교구, 새가복부 지도)

예배를 통해 세워진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음성 가득한

생명 있는 교회를 위하여

하고 문제제기를 하셨다. 죽어가는 교회와 살아 있는 교회의 보편적인 특징에 대하여 잠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 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이므로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라, 기도라 준비하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을 후에 선포하라라고 하셨다. '강단에서의 말씀신호는 전쟁이다', 설교를 통하여 죄가 드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가 높아진다. 마태복음 16장 16-18절 말씀을 믿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를 믿으면 주의 교회이므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는다고 하셨다. 특강을 마치면서 모두 함께 서로 손잡고 기도했다. '생명의 있는 교회를 우리들 통해 만들어 주소서'

이튿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온 교역자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와 위임목사님과 원로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역자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몇 사람씩 손잡고 기도예배를 나누고 기도하였다. 이를 통해 항상 가까이 있었음으로 어느 정도는 거리감이 있었던 교역자들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 자유시간에 위임목사님과 사모님이 탁구 복식 팀을 이루고 부목사님들의 한 팀과 시합을 하였는데, 사모님께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발취(?)하여 2:0로 승리하셨다. 시합에 진 부목사님들은 과연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이번 교역자 수련회를 마치면서 모든 교역자가 서로 다루며 영적으로 더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보고, 더 철저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겠다.

자체토소식

영아부

새진구 초청잔치 가져

지난 주일에 새진구 초청잔치를 열었다. 우선 우리 교회가 다닌다면 영아부에 등록하지 않은 아기들에게 먼저 전도하기 하고 신생아들에게서 전화를 하였다. 예배 중에 인형극 '부자와 나사로'는 우리의 마음을 쟁하게 하였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오직 한 길 지겨, 없어서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갈 곳 있는 오직 한 길 천국임을 모두 함께 깨닫는 시간이었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백야박, 재잘재잘 누구일까요

유년부 1학년 친구들이 3월초 각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잘 마치고 당당한 신입생이 되었답니다. 유년부 신생아들은 학교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귀여운 친구들을 축하하며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주일에는 2학년 2반 친구들이 신생아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연구수업을 하였습니다. 담임이신 정경진 선생님은 질척하고 여유롭게 30여 분 동안의 수업을 잘 진행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연연구 수업 부분과 알맞은 시간 분배, 대화식 수업방식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구수업을 통해 자신의 수업 방식과 비교 분석하기를 습득하는 교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선생님의 진지한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말씀 집중을 위한 변화

지난 3월 7일 주일부터 우리 초등부에서는 예배 시간에 늦는 어린이가 많아서 고민하던 차에 예배 시간에 앉는 순서를 반별로 앉힌 지체로서 오는 순서대로 앉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반별로 앉다 보니 군데군데 빠지고 또 산만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는 앞에서부터 차례

차례 줄을 지어 앉다 보니 예배 드리는 차례도 좋아지고 또 부모님도 어린이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아주 차분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미숙 통신원)

소년부

새진구 초청잔치

오는 4월 25일 새진구 초청잔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확연히 전도 및 태신자로 가정된 친구들을 초청한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소년부에 해당하는 연령의 장비를 가진 성도님들 중 자녀가 소년부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님에게 잔치에 초청하는 열의 발송은 물론 신생아들이 직접 전화를 십망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유 등을 파악하고 아울러 잔치에도 적극 초청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한연숙 통신원)

중등부

교사 특강 '뉴에이지란 무엇인가'

지난 겨울수련회에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신박 특강 '뉴에이지란 무엇인가'는 다시 주제로 교사특강을 실시했다. 강사 출신인 정 선생님은 뉴에이지운동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와 그에 대처하는 정신 자세에 대해 열강을 하였다. 교사들은 막연하게 알고만 있던 뉴에이지운동의 실체를 파악하므로 자신들은 물론 학생 지도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고 호기했다. (심순영 통신원)

장년2부

정종식 장로를 강사로 모시고 특강

3월 21일 주일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실에서 50대 장년층의 성도로 구성된 장년2부가 장년2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정종식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종식 장로님은

자신의 풍부한 사회 경험을 통해 오늘 의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 에게 바른 신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잔치에 많은 성도님의 참석을 바랍니다. 매주일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실에서는 50대 성도님들을 위해 장년2부가 모입니다. 윤영택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공부가 있으나, 오셔서 영적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동시에 성도간의 아름다운 친교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지윤 통신원)

장년3부

풍성한 잔치 후에 주님을 전양하게

지난 주일에는 장년3부에서 열은 배가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많은 회원이 잔치에 참여한 풍성한 잔치였다. 먹을 때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반별친교를 통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되어져 서로 서로 격려하고 지체들을 부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회원 배가 운동의 날로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달로부터 회원 부흥의 시작의 달로 심장 가득히 채워 주심을 감사드릴 수 있었다. 풍성한 잔치에 초대된 사랑하는 형제들의 발걸음이 가득하다. 진행되어 있는 것도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집도를 맞이하는 3월은 주님 손 붙이고 우리의 목장을 열어 찬양하기를 바란다. (염미숙 통신원)

교정전도회

공주교도소 전도집회

교정전도회에서는 지난 9일 오후에 공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전도집회를 가졌다. 누가복음 7장 11-17절을 중심으로 사경된 목사가 말씀을 전한 이 집회를 통해 135명이 주님 앞으로 왔다는 결실을 맺었다.

14교구

더욱 확대된 교구 식구들

저희 교구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확대된 듯합니다. 지난 주년 14교구 전체 새벽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때문인지 봅니다.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각자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를 바라며 교구 목회인 '사랑할 줄기는 구'의 실천 사항 중 매일 성경읽기와 매일 기도하기를 권히 지켜 가자는 목사님의 격려가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일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리라 믿으며, 매일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씩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한다. (이매나 통신원)

충현복지관

자녀연회도 모십니다

· 18세 이상의 남·녀로 6개월 이상 봉사한 분
· 정신지체인 교육 및 작업 보조, 행정 업무 보조, 캠프 참여, 기타 창조적 프로그램 진행
· 문의: 565-7564

동서울도 제55회 정기대회에 각종 고신신성서들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목사고시정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정원 ③ 전도사 고시 정원
④ 목사 후보고시 정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지원 지시사항)
⑤ 신학 계속 추진 정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1999년 3월 21일(주)일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부(☎ 563-2339)

교회 소식 / 목·정발

- ※ 왕 일
1. 제직회 안내/오늘 전야예배 후 분당에서 있습니다. 제직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용대회 안내/이·미용 기술을 가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분의: 장준식 사무(554-0540)
 3. 98년도 메시안 CD 발간/구입처: 사무국, 찬양위원회실(500광에 한해 1장당 3천원만 부과)

- ※ 모 일
1. 장로 회교세비기도회/16일(화) 세비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필요세비기도회/15일(월) 세비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학교 기도회/오늘 15:00, 장미교회
 4. 전도위원회 회례/오늘 10:10, 인도위원회실
 5. 사회위원회 회례/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6. 기화위원회 회례/15일(월) 19:00, 신관관 301호
 7. 교육관 신도 회의/17일(수) 22:00, 교육관 107호
 8. 장로전도회 임원회의/오늘 15:00, 경찰청전도회실
 9. 경찰청전도회 회례/21일(다움주일) 15:00, 메추리기울
 10. 성립전도회 목회자/18일(목) 세비기도회 후, 성립전도회실
 11. 안수집사 부부기도회/17일(수) 1부예배 후, 교육관 212호
 12. 권사회 제2회 회례/17일(수) 1부예배 후, 사무국실

- ※ 나나전도회
1. 바울 1/20일(토) 18:30, 새영가문
 2. 바울 2/20일(토) 18:00, 종로빌, 17:00, 경주골리하우스(0347-62-2571)
 3. 바울 3/16일(토) 18:00, 종로빌(부부 동반)
 4. 바울 7/21일(다움주일) 구교모임 후, 복자관 지하1층
 5. 바울 10/16일(토)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1호
 6. 바울 14/오늘 나나전도회 영성훈련 후, 분당 116호
 7. 바울 17/20일(토) 18:00, 종로빌 회례(17:00-22:00)
 8. 베드로 5/20일(토) 17:00, 교육관 109호
 9. 베드로 4/20일(토) 19:00, 캐슬라 집사대(부부 7개, 7-108)
 10. 베드로 5/19일(금) 11:00, 찬양기도원(부부 동반)
 11. 베드로 10/21일(다움주일) 15:00, 구교모임장소
 12. 베드로 12/21일(다움주일)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3. 베드로 17/20일(토) 18:30, 복자관 집사대(7:35-3777)
 14. 요한 5/20일(토) 19:00, 학자부실

15. 요한 7/18일(목) 19:00, 캐슬라회전(2000) 기도원 출발, 문의: 011-247-3117
16. 한나 1/오늘 구교모임 후, 학자부실
17. 한나 2/오늘 구교모임 후, 학자부실
18. 한나 5/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407호
19. 한나 6/오늘 구교모임 후, 호신관
20. 한나 7/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1. 한나 8/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107호
22. 한나 9/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4호
23. 한나 10/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1호
24. 한나 15/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5. 한나 16/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6. 에스더 2/21일(다움주일) 구교모임 후, 복자관 지하2층
27. 에스더 4/16일(토) 11:00, 잠원빌
28. 에스더 6/21일(다움주일) 구교모임 후, 잠원빌
29. 에스더 17/21일(다움주일)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30. 루디아 1/15일(토) 11:00, 사마부실
31. 루디아 2/22일(토) 11:00, 잠원빌
32. 루디아 4/18일(토) 11:00, 잠원빌
33. 루디아 5/16일(토) 11:00, 새가목회 교사실
34. 루디아 8/21일(다움주일) 구교모임 후, 교육관 107호
35. 루디아 9/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36. 루디아 15/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12호
37. 루디아 17/16일(토) 11:00, 배후사 집사대(0342-716-5755)
38. 루디아 5/16일(토) 10:30, 열마부실
39. 디미타 7/23일(토) 10:30, 사랑교회(097-7957)
40. 디미타 10/16일(토) 10:30, 장제대 집사대(033-6278)
41. 디미타 12/16일(토) 10:30, 신성교회 집사대(033-6278)
42. 디미타 14/16일(토) 10:00, 유인영 집사대

※ 결혼

1. 임성근(김명정) 신도, 임영자 집사의 아들, 9교구/김수민 장(김남용) 성도, 김형성 집사의 딸/20일(토) 13:00 잠원빌

※ 별세

1. 이명선 집사(바람순 권사 남편, 김은자 집사 사부, 11교구 도원구) 4월 13일, 인제 장례
2. 정현영 성도(배춘숙 권사 남편, 10교구 창동1구) 11월 13일, 13일 장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목회사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목회사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목회사	인도자	
311	김재익	1	배석도	김경애(17)	342	조비아	19	애마나루	박발만(9)	373	박나은	19	대학부		
312	김진숙	1	최진22		343	홍희숙	6	최진24		374	김민수	19	대학부		
313	이영미	6	최진24	김성준(17)	344	최희정	15	한정영(13)	375	김진숙	19	대학부			
314	이영준	6	최진24	이영준(5)	345	이영준	13	배석도	376	김민수	19	대학부			
315	이영준	6	배석도	이영준(5)	346	이기광	16	대학부	377	김민수	19	대학부		전승호(6)	
316	이영준	6	배석도	이영준(5)	347	안소윤	19	중동부	378	신현정	19	대학부			
317	정영하	10	애마나루	정영하(1)	348	한나	19	중동부	379	이진	19	대학부			
318	조진숙	11	바울		349	김진숙	19	중동부	380	민영희	19	애마나루		송준익(19)	
319	조진숙	11	바울	유지국(3)	350	유지국(3)	4	배석도	381	김진숙	19	대학부			
320	조진숙	11	최진21	351	김진숙	5	최진21	382	조진숙	19	대학부				
321	김진숙	15	배석도	장진희(13)	352	김진숙	5	최진21	383	조진숙	19	대학부			
322	김진숙	15	배석도	장진희(13)	353	장진희	5	배석도	384	조진숙	19	대학부			
323	이영준	15	배석도	장진희(13)	354	장진희	5	배석도	385	조진숙	19	대학부			
324	김진숙	16	장진희(14)	355	유지영	5	고동부	386	배석도	19	대학부				
325	김진숙	16	장진희(14)	356	배석도	6	이진희(6)	387	배석도	19	대학부				
326	이영준	19	중동부	김진숙(17)	357	김진숙	6	이진희(14)	388	김진숙	19	대학부			
327	배석도	19	중동부	김진숙(17)	358	이희봉	6	장진희(14)	389	이영준	19	대학부			
328	배석도	19	중동부	김진숙(17)	359	이진숙	6	장진희(14)	390	이진숙	19	대학부			
329	조진숙	19	중동부	김진숙(17)	360	이진숙	7	장진희(14)	391	이진숙	19	대학부			
330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61	배석도	8	장진희(14)	392	김영희	19	대학부			
331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62	배석도	8	장진희(14)	393	김진숙	19	대학부			
332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63	배석도	8	장진희(14)	394	이영준	19	대학부			
333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64	배석도	8	장진희(14)	395	배석도	19	대학부			박영준(10)
334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65	배석도	8	장진희(14)	396	김진숙	19	대학부			신진석(15)
335	배석도	19	대학부	한정영(10)	366	배석도	8	장진희(14)	397	김진숙	19	대학부			장영호(3)
336	배석도	19	대학부	한정영(10)	367	배석도	8	장진희(14)	398	김진숙	19	대학부			
337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68	배석도	8	장진희(14)	399	배석도	19	대학부			
338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69	배석도	8	장진희(14)	400	배석도	19	대학부			최정현(7)
339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70	배석도	8	장진희(14)	401	배석도	19	대학부			
340	김진숙	19	대학부	한정영(10)	371	배석도	8	장진희(14)							
341	황서진	19	애마나루	정영하(14)	372	김진숙	14	바울	윤재현(1)	402	이기광	19	대학부		
				최환주(39)	373	배석도	15	배석도		403	나유미	19	대학부		
					374	배석도	16	장진희	김정석(16)						

※찬양회교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정발

기도의 산에 오르는 이들

이들의 순수한 외침으로 교회가 살고
이들의 깨끗한 믿음으로 세상이 산다

회요일 오전 11시가 다된 시간. 기도원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와 길목에 설치된 모니터를 번갈아 가며 주시한다. "오늘은 비스가 좀 늦네?", 혹시 비스가 고장이라도 났는가? 아니면 교통이 꼭 막혀야 많이 늦어질지는 것은 아닌가? 열리스턴 생가야 마를을 들러가려나.

분주한 2월이 지난 기도원의 3월은 한적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그동안 일익에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가 그림자 노를 불렀던 나는 기도원의 한적함과 더불어 올라온 몇 명의 성도들, 그리고 교역자들과의 대화시간, 그리고 10분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아침 저녁의 예배를 내심 즐기다. 그러나 이제 불과 두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화요일 오전이 되면 성도들이 무척 기다려진다. 우리들 풀러들은 그들의 발걸음에는 어떤 '성심'과 '순전함'이

함께 붙어온다. 기도하는 산에 오르는 성도들은 참 순수해 보이고, 그 믿음의 무척 깨끗해 보인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총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화신 가운데 올라와 외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얼굴은 환한 기쁨과 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비스가 도착했다. 풍사하는 곳 두 곳이나 되어서 차가 많이 밀렸다며 쏙스러워하곤 한다. 내 가슴이 뭉다.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버지 성도들이지만 지극히 사랑스런 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감사와 고마움이 가득 밀려온다. 이들의 기도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사는 것이 가슴깊이 느껴진다. (정진식 목사)

3월 21일 예배 전 전야기도 및 연주

※ 2부예배
할렐루야삼성중단

- 〈찬양곡목〉
- 서로 사랑하자 · 허락하신 새 땅에
- 깊은 강 · 시온성과 같은 교회

※ 3부예배
할렐루야삼성중단

- 〈찬양곡목〉
- 서로 사랑하자 · 허락하신 새 땅에
- 깊은 강 · 시온성과 같은 교회

※ 4부예배
플루트 김수정

- 〈아벤트오케스트라〉
- 〈찬양곡목〉
- 생명의 양식
- 은혜와 나의 목자시니
- 내 맘에 사랑 없으면
- 주님을 찬양하라 · 주기도문

※ 5부예배
복권민

- 〈아벤트오케스트라〉
- 〈찬양곡목〉
- 오 신실하신 주
- 주의 신을 내가 떠나 · 감사해

충현 중보의 창

① 김장민 원로목사와 김장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세워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되도록 인도하소서.

③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로 거듭나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④ 오늘 성탄절은 장학생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 받는 천국원로들로 성장시켜 주소서.

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군복무자의 주소를 받습니다

군에 복무 중인 형제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함께하기 위하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형제들의 주소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제출도 하시고, 또 제출된 주소도 확인해 주시면 복무 중인 형제와 사귀를 함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군전도회 —

■ 원로목사

김장민

■ 위임목사

김장관

■ 부목사

이종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성준

김필수 전영준 김재철 이숙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진익 권상현 이송하

정재호 박노철 이종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민

■ 신사

이준근 안석렬 김영대

■ 감도사

박진익 염현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춘복

■ 전도사

정현민 현경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박윤민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배옥순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호 김영숙 김복순 김진익

■ 고정전도사

박영익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창준 조재민

하용구 김병수 이종태 김옥순 김일숙

■ 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이석현

■ 평신전도사

유병재 김형선 이기성 김형영 고은빈

최희준 강기열